

##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

###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송두범\*\*, 임준홍\*\*\*, 홍성호\*\*\*\*

소득양극화의 지속과 계층 간 상이한 이주는 지역 내 사회계층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계층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웃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결정되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사회의 성쇠를 좌우한다. 충남사회조사를 순위로짓모형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남아 있을 확률은 낮아지며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에 대한 가구주 학력의 평균 한계효과는 거주 시군 내 이주에서 0.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포시도시를 포함하여 도내 타 시군 이주에서 0.18%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사회계층을 가구주의 학력 대신에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정의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에 있어 사회계층 간 이주희망지역에서 위계상 차이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이웃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상위계층의 이탈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사회에는 종국적으로 하위계층만이 남게 되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악순환이 적어도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요구된다.

주제어 : 계층, 이주, 사회통합, 순위로짓모형

\* 이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도 기본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1저자,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공동저자,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 교신저자,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 I.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계층화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다.<sup>1)</sup> 또한, 이러한 사회계층화는 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고 이는 과거에 비해 보다 빈번해진 지역 간 이주와 더불어 이주에서의 계층 간 차이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충남으로부터 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08,497명에 해당하고 전출지별 분포는 경기 29.1%, 서울 18.1%, 대전 15.2%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충남으로의 이주를 반영한 순이동자수에서는 세종시로의 순이주가 7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국에 걸쳐 전입이 전출에 비해 13,375명만큼 많았음을 고려할 때 충남도민의 세종시로의 이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부록의 <표 A1> 참조).

충남은 다양한 대내외적 이유로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지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내적으로는 수도권 인접과 중위적 입지로 인해 국내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에, 외적으로는 인근 세종시의 출범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야기했으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충남 도민 가운데 (경제적 여력을 갖춘 혹은 통상적인 지위상) 상위 계층에서 수도권이나 세종시 혹은 대전시와 같은 인근의 정주여건이 나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크게 나타나고 이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서 충남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자기-강화적인(self-reinforcing) 악순환을 야기한다(부록의 <표 A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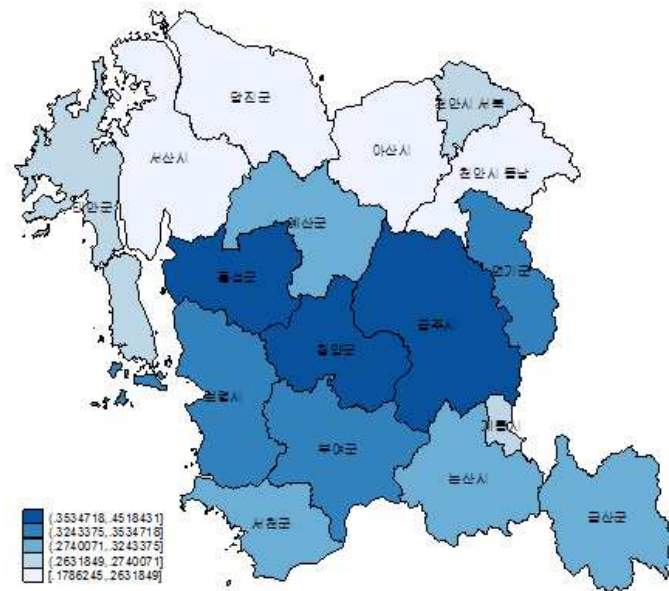
개별 읍면동에서 가구주 학력에 의해 정의된 계층별 주거분포를 이용한 해당 시군구의 비유사성 지수(dissimilarity index)에 의하면, 홍성군, 공주시, 청양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계층 간 주거분리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sup> 특히, 홍성군의 경우 저학력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이나 면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해당 계층의 45.2%가 이주해야 계층 간 주거분포가 전국의 그것과 유사해짐을 나타낸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대전시 등은 충남에 비해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보다 잘 갖춰진 반면 지가를 포함한 주거비용 역시 높아 충남 도민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더불어, 이주 대상 지역들 간 위계가 존재하며, 거주지선택에서의 Tiebout가설("vote with their feet")에 따라 보다 높은 계층에 해당할수록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은 위계상 상위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 세종시와 대전시, 도내 타 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 일례로, 김경혜(2010)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Wolfson지수와 ER(Esteban and Ray)지수로 측정된 소득양극화의 정도가 2000년과 2008년 사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2) Massey and Denton(1988)에 의한 비유사성 지수, 
$$\frac{\sum_{i=1}^n [t_i |(p_i - P)|]}{2TP(1 - P)}$$
 여기서,  $t_i$ 는 읍면동  $i$ 의 인구,  $T$ 는  $\sum_{i=1}^n t_i$ ,  $p_i$ 는 읍면동  $i$ 의 인구에서 저학력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  $P$ 는 모든 읍면동  $i$ 를 포함하는 해당 시군구 전체에 걸친 저학력 계층의 비중을 나타낸다.

3) 세종시의 경우, 관련 도시계획상의 예상되는 생활여건을 전제로 한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전수자료  
[그림 1] 충남의 시군별 비유사성 지수

따라서, 본 연구는 「2013 충청남도 사회조사」에 나타난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계층이 높은 경우 정주여건이 보다 나은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높고 이와 더불어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위계상 상위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지역 간 이주는 전출지역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비경제적인 영향을 야기한다. 특히, 이주가 사회통념상 상위 계층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출지역은 역할모델(role model) 혹은 인적자원의 유출로 인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의 기회가 줄어들고 계층 간 주거분리현상으로 하위 계층만 남게 되어 해당 지역사회가 황폐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비록 충남에 한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충남을 비롯하여 인구 혹은 인적자원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타의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 간 이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이주희망 지역의 위계와 위계에 따른 이주의향의 계층 간 차이를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

다음 장은 이주-특히, 계층과 이주-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모형을 도출한다. 제3장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 1. 이론적 배경

Tiebout(1956)는 지방공공재 공급수준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방공공재 공급수준에 대한 선호가 유사하고 이에 대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즉, 유사한 계층-이 사는 관할구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이주를 통한 투표(vote with their feet)”를 할 수 있고 유사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 내에 패지어 살게 됨(sorting)을 제시한다.<sup>4)</sup>

반면, Becker and Murphy(2000)는 특정 지역에서의 지불용의지대(bid-rent)가 해당 지역 내 계층 간 구성비의 함수이며 상위 계층의 구성비 상승에 따른 상위 계층의 지불용의지대가 하위 계층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계층 간 격리가 야기됨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제시한다. 특히, 지불용의지대가 지역 내 상위 계층의 구성비에 대해 증가하는 함수로 정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위 계층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아 역할모델로서의 긍정적 이웃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sup>5)</sup>

Christaller(1966)와 Losch(1954)에 의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은 개별 기업들의 시장구역(market area)이 산업 간 상이하며 이로 인해 도시들의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만일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제품에 대한 1인당 수요에 비해 크다면, 개별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소진할 만큼 충분히 큰 수량을 판매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예컨대, 뇌수술센터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1인당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서만 입지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해당 도시의 인구에 의존하고 이는 도시의 위계를 야기한다.

이주결정요인에 관해 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주 전후 지역 간 사회경제적 여건(기대소득, 인구밀도, 지가 등)의 차이에 의해 주로 설명한다(홍성호·유수영, 2012). 반면,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이주(의향)의 행태를 설명하고자 하며, 지역 간 사회경제적 여건(정주여건으로서 자연환경, 사회안전, 지역소속감 등)의 차이를 이주희망지역 간 위계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이를 테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계층의 이주희망지역으로 인식-에 기초하고자 한다.<sup>6)</sup>

### 2. 분석모형

---

4) Heikkila(1996)는 로스앤젤레스의 지역공동체들이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에 있어 상대적으로 동질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Fisher and Wassmer(1998)는 대도시지역에서 지방공공재에 대한 내재적인 수요에 있어 가구들 간 차이가 클수록 이 대도시지역에 보다 많은 수의 지방자치시와 학군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5) Cutler and Glaeser(1997)는 보다 격리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흑인의 경우 소득과 고등학교 졸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격리의 정도가 10%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은 4.9%만큼 상승하고 일을 하지 않을 확률이 8.8%만큼 증가함을 제시하며, 이는 격리를 통해 이들이 보다 성공적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의 접촉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 특히, 지역 간 차이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운영에서의 중추관리기능, 분업구조, 생활의 질 등을 포함하는 질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초의수, 2000; 박희봉·이희창, 2002).

본 연구는 이주의향의 계층 간 차이와 함께 희망이주지역의 위계와 이주희망자의 계층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선행연구들에서와 유사하게 정의된 이주결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충남 도민 가운데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이항로짓(binary logit)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move_j = \alpha_0 + Z_j\zeta + A_j\gamma + C_j\psi + \sum_h \kappa_h area_h + \epsilon_j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인  $move_j$ 는 개인  $j$ 의 이주의향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에 해당한다.  $Z_j$ 는 해당 개인의 특성-즉, 남성 여부,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1인 가구 혹은 비혈연 가구 여부)-을 포함하고,  $A_j$ 는 의료시설, 주거시설, 자연환경, 사회안전 등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낸다.  $C_j$ 는 해당 개인의 계층을 구분하는 학력 혹은 소득수준을 포함하며,  $area_h$ 는 개인  $j$ 가 거주하는 시군  $h$ 에 대한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epsilon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결국,  $C_j$ 의 추정계수인  $\psi$ 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정주여건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높으며 이주희망지역 역시 위계가 존재하여 상위 계층일수록 상위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더불어, 이주희망 지역의 위계를 반영하기 위해 순서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추가로 분석한다. 이 경우 식 (1)에서의 종속변수는 이주의향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가 아닌 이주희망 지역의 위계를 나타내는 다항변수에 의해 정의된다.

### III. 자료 및 변수

#### 1. 자료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2013 충청남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sup>7)</sup> 자료에 포함된 가구주 표본 1만5천명 가운데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값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가구주 표본은 12,220명으로 이들 가운데 79.0%는 이주의향이 없는 반면 이주의향이 있는 가구주의 비율은 이주희망 지역별로 거주 시군 내 13.1%, 내포신도시 0.7%, 내포신도시 제외 도내 타 시군 1.7%, 대전광역시 0.9%, 세종특별자치시 0.6%, 수도권 2.4%, 그 외 지역 1.6%로 나타난다.

7) 이는 충청남도에 의해 조사된 정부승인통계로서, 가구주와 가구원을 구분하여 조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에 대한 부분만 분석에 포함한다. 조사내용은 가구주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보와 가구의 유형 등과 함께, 일과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주거와 교통, 환경,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지역사회와 참여 영역에서의 여건과 만족도를 포함한다.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3년 8월 21일이며,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1만5천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각 구·군별 15층의 층화추출에 의하여 시군별 최소 표본규모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가구주는 호주/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을 계획 및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조사표에서 정의된다.

## 2. 변수

분석에 포함된 가구주 가운데 72.9%가 남성에 해당하며, 평균 연령은 58.3세로 18세부터 100세의 가구주를 포함한다. 혼인상태에 따른 가구주의 분포는 미혼 7.3%, 기혼 66.8%, 사별 21.4%, 이혼 4.5%로 나타난다. 세대 구성에 따라 가구형태를 구분하면, 표본의 27.7%가 1인 가구이거나 비혈연 가구에 해당한다.<sup>8)</sup>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시설, 주거시설, 자연환경, 사회안전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도내 의료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장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0점부터 가장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는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이의 평균은 5.96점에 해당해 ‘보통’을 다소 상회한다.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11점 척도로 측정되며, 이의 평균은 5.88점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거주지의 녹지보존 및 주변 자연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정의되며, 이의 평균은 6.70점으로 나타난다. 자료는 거주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쾌적성을 다섯 개의 평가요소-대기, 수질, 토양, 수변 소음공해, 그리고 녹지보존 및 주변 자연환경 쾌적성-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녹지보존 및 주변 자연환경 쾌적성에 한정한다. 사회안전 역시 여섯 가지 평가요소-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교통사고, 화재(산불 포함), 범죄 위험,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안전-로 구분되어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한정하여 정의하며, 이의 평균은 6.01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거주환경은 대부분 물리적인 여건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신뢰나 관계 등과 같은 비물리적 여건 또한 이주의향에 고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연구는 이를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으로 측정한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 역시 소속감이 가장 낮은 0점부터 가장 높은 10점으로 측정되며, 이의 평균은 5.94점으로 조사된다. 반면,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환경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며 보다 많은 변수들에 의해 측정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거주환경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대안적으로 고려하며, 이 역시 11점 척도로 측정되고 분석에 포함된 가구주들의 평균은 5.55점으로 나타난다.

8) 이들 가운데 0.9%만이 비혈연 가구에 해당한다.

9) OECD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이를 테면, Boarini et al.(2012)-와 임준홍·홍성효(2014)는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표 1> 기초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이주의향 여부	0.210	0.407	0	1
남성	0.729	0.445	0	1
연령	58.294	16.671	18	100
<b>혼인상태</b>				
미혼	0.073	0.260	0	1
기혼	0.668	0.471	0	1
사별*	0.214	0.410	0	1
이혼	0.045	0.208	0	1
1인/비혈연 가구	0.277	0.447	0	1
<b>거주환경 만족</b>				
의료시설	5.964	1.895	0	10
주거시설	5.881	2.109	0	10
자연환경	6.699	2.161	0	10
사회안전	6.012	1.773	0	10
지역소속감	5.943	2.069	0	10
삶의 만족	5.550	1.942	0	10
<b>계층</b>				
학력	9.442	5.241	0	23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366	0.482	0	1
1~2백만원	0.211	0.408	0	1
2~3백만원*	0.170	0.375	0	1
3~4백만원	0.104	0.305	0	1
4~5백만원	0.075	0.263	0	1
5~6백만원	0.033	0.180	0	1
6백만원 이상	0.042	0.201	0	1

주 : \*는 회귀분석에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해당함.

본 연구에서 계층은 가구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의해 구분한다.<sup>10)</sup> 분석에 포함된 가구의 평균 교육년수는 9.4년으로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중퇴의 학력수준을 나타낸다. 교육년수의 표준편차는 5.2년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표본은 무학부터 박사학위까지 포함하며 학력수준별 분포는 무학 13.1%, 초등학교 24.2%, 중학교 11.1%, 고등학교 25.5%, 대학교 학부 22.6%, 대학원 3.5%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백만원 미만 36.6%,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21.1%,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17.0%, 3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10.4%, 4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5%, 5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3.3%, 6백만원 이상 4.2%로 분포한다.

부록의 <표 A2>는 이주의향 여부와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의 이주희망 지역에 따른 학력과 소득의 분포를 제시한다.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력 혹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주의향을 지닌 경우에도 거주 시군 지역 내 이주나 내포신도시 포함 도내 타 시군으로의 이주의향보다는 충남 이외 비수도권 혹은 수도권으로의 이주의향에서 평균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우리나라에서 사회계층의 구분은 주로 가구의 학력이나 직업위계 혹은 가구소득에 이뤄지고 있다(이를테면, 최은영, 2004; 김경근, 2005; 홍성효·장수명, 2014).

## IV. 실증분석 결과

### 1. 이주의향 여부

<표 2>는 이주의향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이향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열 (1)은 가구주의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와 가구형태, 그리고 시군에 대한 고정효과만을 설명변수로 모형에 포함하고, 열 (2)와 (3)은 열 (1)에 추가적으로 의료시설, 주거시설, 자연환경, 사회안전, 지역소속감, 삶의 만족으로 구분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열 (4)~(6)은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기 위한 변수인 가구주 학력과 가구소득을 모형에 포함한다.

먼저, 가구주 혹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 여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에 이주의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이의 표준편차인 16.7세만큼 감소하는 경우 이주의 가능성은 11.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가구주의 혼인상태 간 이주의향의 차이의 정도는 모형 간 다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가구주가 사별한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의 경우에 이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혼의 경우에는 이주의 가능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해당 가구가 1인 가구이거나 비혈연 가구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환경 만족도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는 주거시설과 사회안전 측면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반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해당 가구주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은 낮아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의료시설의 이주의향에 대한 영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열 (6)의 결과에 기초해 평균 한계효과를 비교하면,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이의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경우 이주의 가능성은 1.6% 감소하는 반면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해당 변화는 이주가능성을 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의사결정에 있어 사회안전에 비해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수록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이주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삶의 만족도는 해당 지역의 거주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계층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의향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 (4)에 기초한 학력의 이주의향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는 1.33%로,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이의 표준편차인 5.241년만큼 증가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이주의향은 6.97%만큼 상승함을 의미한다.

가구소득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해당 가구의 이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 (5)의 결과를 이용한 평균 한계효과에 의하면, 가구소득이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1백만원 미만의 가구와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의 가구는 이주가능성이 각각 6.38%와 3.97%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4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가구, 5백만원 이상 6백

11) 이는 <표 2>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추정결과에 기초한 연령의 평균 한계효과-개별 가구주에 대한 연령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후에 이를 평균한 수치-인 -0.67%와 <표 1>에 제시된 연령의 표준편차인 16.671세 간의 교차항에 의해 계산된다.

만원 미만, 그리고 6백만원 이상의 가구는 이주가능성이 각각 3.86%, 5.18%, 그리고 3.81%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이주의향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 추정결과

	(1)	(2)	(3)	(4)	(5)	(6)
남성	-0.0378 (-0.39)	-0.0040 (-0.05)	-0.0444 (-0.46)	-0.0848 (-0.89)	-0.0875 (-0.89)	-0.1293 (-1.27)
연령	-0.0822** (-16.64)	-0.0763** (-16.21)	-0.0831** (-17.17)	-0.0598** (-16.63)	-0.0701** (-16.10)	-0.0583** (-16.75)
<b>혼인상태</b>						
미혼	-0.2226* (-1.68)	-0.2022 (-1.38)	-0.2085 (-1.55)	-0.4156* (-2.51)	-0.1430 (-0.96)	-0.3482* (-1.99)
기혼	0.6625** (5.30)	0.7084** (5.55)	0.7196** (5.62)	0.3904** (2.79)	0.5296** (4.01)	0.3207* (2.25)
이혼	0.6229** (4.51)	0.5375** (4.01)	0.5958** (4.38)	0.3363* (2.49)	0.5377** (3.86)	0.3696* (2.54)
1인/비혈연 가구	0.3339** (3.56)	0.2811** (3.17)	0.3453** (3.80)	0.2973** (3.42)	0.3626** (3.92)	0.3459** (3.79)
<b>거주환경 만족</b>						
의료시설		-0.0114 (-0.53)		0.0034 (0.16)	0.0004 (0.02)	0.0090 (0.41)
주거시설		-0.1846** (-9.88)		-0.2018** (-11.49)	-0.2009** (-10.59)	-0.2100** (-11.64)
자연환경		-0.0110 (-0.55)		-0.0137 (-0.72)	-0.0104 (-0.53)	-0.0127 (-0.66)
사회안전		-0.0769** (-3.67)		-0.0793** (-3.87)	-0.0759** (-3.77)	-0.0785** (-3.94)
지역소속감		-0.0853** (-3.93)		-0.0854** (-3.90)	-0.0900** (-4.00)	-0.0888** (-3.93)
삶의 만족			-0.0753** (-5.31)			
<b>계층</b>						
학력				0.1151** (11.85)		0.0973** (7.88)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5498** (-5.80)	-0.3675** (-3.84)
1~2백만원					-0.3419** (-2.86)	-0.2720* (-2.27)
3~4백만원					0.1191 (1.09)	0.0491 (0.45)
4~5백만원					0.3321* (2.54)	0.2208* (1.72)
5~6백만원					0.4465** (3.37)	0.2546* (1.78)
6백만원 이상					0.3283* (1.88)	0.1487 (0.77)
Pseudo R <sup>2</sup>	0.2554	0.2850	0.2578	0.2973	0.2925	0.3003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은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과 15개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의 계수값은 표시되지 않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가구(주)의 수는 12,220임.

학력과 가구소득을 함께 고려한 열 (6)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대체적으로 계층이 높아질수록 이주의향이 커짐을 볼 수 있다.

대전시민의 세종시로의 이주의향에 관한 임병호 외(2012)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제시해, 비록 분석의 대상은 다르나 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수입과 자산은 이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계수가 부(-)의 값을 가져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상이한 결과 역시 제시한다.<sup>12)</sup>

## 2. 이주희망지역

Christaller(1966)와 Losch(1954)의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해당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상이함-특히, 보다 큰 도시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제시하며, 이는 도시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효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도시의 규모나 기능에 따라 거주지로서의 선호가 위계적 분포를 나타낼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 간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

부록의 <표 A3>은 이주희망 지역들의 이러한 위계를 반영하기 위해 식 (1)에서의 종속변수를 이주의향 여부 대신에 이주의향이 없는 경우, 거주 시군 지역 내 이주, 내포신도시 포함 도내 타 시군 이주, 충남 이외 비수도권 이주, 수도권 이주로 구분하는 순위로짓(ordered logit)모형을 추가로 분석한다.<sup>13)</sup> 더불어, <표 3>은 <표 A3>의 열 (6)에서의 결과에 기초한 개별 변수의 이주희망지역별 평균 한계효과를 제시한다. <표 A3>의 결과는 <표 2>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계층을 구분하는 변수들 간 상대적 크기의 변화를 보면,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한 <표 A3>에서 학력의 영향이 보다 커졌으며 가구소득의 영향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보다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설명변수의 이주희망지역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남아 있을 확률은 낮아지며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에 대한 가구주 학력의 평균 한계효과는 거주 시군 지역 내 이주에서 0.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포신도시 포함 도내 타 시군 이주에서 0.18%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가구소득수준별 이주의향에서는 충남 이외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에서 소득수준별 이주의향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12) 충남과 대전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임병호 외(2012)에서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는 유사하나 상이한 부분 역시 공존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필요한 관련 정책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이주희망 지역으로서 충남 이외 지역을 수도권, 대전, 세종,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광역시와 도, 혹은 호남과 영남 등과 같은 구분이 불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 이외 지역은 대전이나 세종과 위계가 유사함을 전제로 한다.

<표 3>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 추정결과에 기초한 변수별 한계효과

	이주의향 없음	이주의향 있음			
		거주 시군 지역 내	내포신도시 포함 도내 타 시군	충남 이외 비수도권	수도권
남성	0.0152 (1.47)	-0.0070 (-1.48)	-0.0021 (-1.32)	-0.0032 (-1.42)	-0.0029 (-1.42)
연령	0.0064** (22.15)	-0.0030** (-9.10)	-0.0009** (-5.79)	-0.0013** (-3.43)	-0.0012** (-11.22)
<b>혼인상태</b>					
미혼	0.0267 (1.24)	-0.0127 (-1.26)	-0.0036 (-1.31)	-0.0055 (-1.06)	-0.0049 (-1.27)
기혼	-0.0442** (-3.17)	0.0213** (2.90)	0.0060** (2.74)	0.0089* (2.44)	0.0080** (3.28)
이혼	-0.0485* (-2.51)	0.0210* (2.49)	0.0067* (2.19)	0.0106* (2.21)	0.0102* (2.22)
1인/비혈연 가구	-0.0516** (-4.34)	0.0228** (3.58)	0.0071** (3.34)	0.0111** (3.38)	0.0105** (3.78)
<b>거주환경 만족</b>					
의료시설	-0.0007 (-0.28)	0.0003 (0.28)	0.0001 (0.28)	0.0001 (0.27)	0.0001 (0.28)
주거시설	0.0222** (9.73)	-0.0104** (-7.18)	-0.0030** (-6.80)	-0.0046** (-2.99)	-0.0042** (-9.19)
자연환경	-0.0001 (-0.04)	4.29e <sup>-3</sup> (0.04)	1.26e <sup>-3</sup> (0.04)	1.91e <sup>-3</sup> (0.04)	1.26e <sup>-3</sup> (0.04)
사회안전	0.0092** (4.78)	-0.0043** (-3.68)	-0.0013** (-5.06)	-0.0019** (-3.03)	-0.0017** (-4.79)
지역소속감	0.0113** (5.61)	-0.0053** (-4.81)	-0.0015** (-3.49)	-0.0023** (-3.30)	-0.0021** (-4.79)
<b>계층</b>					
학력	-0.0131** (-8.59)	0.0061** (5.93)	0.0018** (5.81)	0.0027** (3.22)	0.0025** (7.76)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0241* (1.92)	-0.0117* (-1.75)	-0.0033* (-1.82)	-0.0049* (-1.88)	-0.0043* (-2.06)
1~2백만원	0.0215* (1.70)	-0.0103* (-1.73)	-0.0029* (-1.65)	-0.0044 (-1.41)	-0.0039* (-1.75)
3~4백만원	-0.0154 (-1.18)	0.0071 (1.26)	0.0021 (1.26)	0.0032 (0.96)	0.0030 (1.14)
4~5백만원	-0.0310* (-2.06)	0.0140* (2.36)	0.0043* (2.18)	0.0066 (1.44)	0.0061* (1.94)
5~6백만원	-0.0397* (-2.54)	0.0175** (2.68)	0.0055* (2.11)	0.0086* (2.12)	0.0081* (2.20)
6백만원 이상	-0.0210 (-0.84)	0.0095 (0.82)	0.0029 (0.80)	0.0045 (0.94)	0.0041 (0.8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z-값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 3. 농촌과 도시 간 차이

<표 4>는 분석을 가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시(city)지역과 군(county)지역으로 구분하여 순서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이주의향은 시지역과 군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시지역에서는 가구주 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군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이주의 의향이 보다 커짐을 볼 수 있다. 가구주의 이주의향에 대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경제활동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며, 여성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보다 어렵기 때문에 군지역에 거주할수록 해당 여성 가구주의 이주의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이주의향 차이에서, 농촌지역에서의 기혼의 이주의향이 도시지역에서의 그것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며, 1인 혹은 비혈연 가구의 이주의향 역시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표 4> 이주의향 여부와 이주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모형 추정 결과의 도시와 농촌 간 차이

	시지역			군지역		
	(1)	(2)	(3)	(4)	(5)	(6)
남성	0.0328 (0.42)	0.0305 (0.34)	-0.0056 (-0.06)	-0.3857** (-2.85)	-0.3026* (-2.21)	-0.4111** (-3.06)
연령	-0.0558** (-12.75)	-0.0674** (-12.00)	-0.0554** (-13.47)	-0.0592** (-11.40)	-0.0736** (-11.92)	-0.0568** (-8.33)
<b>혼인상태</b>						
미혼	-0.4377 (-1.51)	-0.1263 (-0.55)	-0.3890 (-1.38)	-0.0304 (-0.14)	0.2831 (1.47)	0.0882 (0.46)
기혼	0.2863+ (1.68)	0.4813** (3.81)	0.2292 (1.43)	0.7764** (3.37)	0.9420** (4.30)	0.7312** (3.49)
이혼	0.3497+ (1.86)	0.5746** (3.24)	0.3719+ (1.90)	0.2576 (0.80)	0.5099 (1.43)	0.3188 (0.96)
1인/비혈연 가구	0.3311** (3.03)	0.3604** (3.39)	0.3612** (3.36)	0.5684** (3.18)	0.6916** (3.75)	0.6271** (3.55)
<b>거주환경 만족</b>						
의료시설	-0.0024 (-0.10)	-0.0053 (-0.19)	0.0021 (0.08)	0.0208 (0.64)	0.0065 (0.20)	0.0245 (0.73)
주거시설	-0.1967** (-8.27)	-0.1959** (-7.39)	-0.2049** (-8.22)	-0.1583** (-4.56)	-0.1497** (-5.02)	-0.1634** (-4.91)
자연환경	0.0151 (0.65)	0.0181 (0.70)	0.0153 (0.63)	-0.0361 (-1.00)	-0.0261 (-0.70)	-0.0303 (-0.80)
사회안전	-0.1001** (-5.57)	-0.0948** (-5.36)	-0.0985** (-5.60)	-0.0551 (-1.62)	-0.0483 (-1.41)	-0.0575+ (-1.69)
지역소속감	-0.0656** (-4.03)	-0.0703** (-4.38)	-0.0683** (-4.30)	-0.1704** (-6.66)	-0.1733** (-5.89)	-0.1764** (-5.97)
<b>계층</b>						
학력	0.1207** (7.91)		0.1067** (5.58)	0.1492** (10.53)		0.1307** (10.23)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3741** (-3.16)	-0.1949 (-1.61)		-0.5430** (-2.71)	-0.2727 (-1.31)
1~2백만원		-0.2717* (-2.04)	-0.1901 (-1.41)		-0.2264 (-0.92)	-0.1624 (-0.64)
3~4백만원		0.1958 (1.32)	0.1262 (0.85)		0.2146 (1.29)	0.1047 (0.61)
4~5백만원		0.3796* (1.98)	0.2656 (1.48)		0.4474* (2.39)	0.3243+ (1.70)
5~6백만원		0.4657** (3.81)	0.2647+ (1.89)		0.5873+ (1.90)	0.3301 (1.00)
6백만원 이상		0.2854 (1.23)	0.1004 (0.39)		0.6528** (2.85)	0.4716* (2.05)
Pseudo R <sup>2</sup>	0.1666	0.1616	0.1683	0.2321	0.2248	0.2346
관측수		7,349			4,87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은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과 15개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의 계수값은 표시되지 않음.

거주환경 만족에 따른 이주의향의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주거시설, 사회안전, 지역소속감에서 보다 뚜렷하다. 주거시설이나 사회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주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지역소속감이 높아질수록 이주에

대한 의향은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유동철(2013)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사회통합에 보다 긍정적인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반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층을 구분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인 학력에 의한 이주의향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농촌지역에서 가구주 학력의 상승에 따른 해당 가구의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경향은 계층을 가구소득에 의해 정의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상위계층의 이탈에 의한 이웃의 긍정적 외부효과 감소가 보다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2013 충청남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이주의향에서의 사회계층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주희망 지역을 도시의 기능 혹은 역할에 따른 위계상으로 구분하고 보다 높은 사회계층일수록 보다 높은 위계를 지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이주의향 여부에 대한 이향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은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젊거나, 유배우 혹은 이혼이거나, 1인 가구 또는 비혈연 가구인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또한, 거주환경 가운데 사회안전과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감이 낮거나 지역사회 소속감이 낮은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계층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이주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순위로짓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남아 있을 확률은 낮아지며 이주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희망지역별 이주에 대한 가구주 학력의 평균 한계효과는 거주 시군 내 이주에서 0.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내포신도시를 포함하여 도내 타 시군 이주에서 0.18%로 가장 낮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사회계층을 가구주의 학력 대신에 가구의 소득수준으로 정의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에 있어 사회계층 간 이주희망지역에서 위계상 차이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이웃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Becker and Murphy(2000)에서 예측되듯이 상위 계층의 이탈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사회에는 중국적으로 하위 계층만이 남게 되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악순환이 적어도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구성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가운데 하나는 상위계층의 타 지역 이주가능성이 농촌에서 보다 높다는 점이며, 이는 일례로 농촌의 사회통합과 이웃효과의 증대를 위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동화(assimilation)가 중요함을 함축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주희망지역을 보다 자세한 지리적 단위에서

---

14)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가운데 젊은 세대에 의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과 함께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에 기인해 사회계층 간 이주의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학력변수가 추정상의 오차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하나, 회귀식이 설명변수로 연령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상의 오차의 가능성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는 경우 보다 다양한 관련 가설과 명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계층과 이주희망지역의 위계를 연계함으로써 농촌과 같은 위계상 하위 지역의 양적 지속(인구규모)과 질적 지속(인적자원)의 유지를 위해 정책들이 요구됨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다시 말해, 사회안전, 주거시설, 지역사회 소속감의 강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이주, 특히 상위계층의 이탈을 최소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가 삶의 터전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pp. 1-27
- 김경혜, (2010), “서울시 소득양극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SDI 정책리포트』, 제66호, pp. 1-22
- 박희봉 · 이희창, (2002), “지역격차 현황과 쟁점”, 『정책과학연구』, 제14권, pp. 195-227
- 유동철, (2013), “한국 사회통합수준의 지역격차 분석”, 『법정리뷰』, 제30집 제2호, pp. 43-60
- 임병호 · 금기반 · 이시영, (2012), “대전시민의 세종시로 이주의향 및 이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4권 제3호, pp. 107-124
- 임준홍 · 홍성호,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을 사례로 -”, 『주거환경』, 제12권 제2호, pp. 137-152
- 초의수, (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1호, pp. 185-216
- 최은영, (2004),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3호, pp. 374-390
- 홍성호 · 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pp. 1-19
- 홍성호 · 장수명, (2014), “교육적 수요에 따른 계층 간 주거분리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pp. 1-25
- Becker, G., and Murphy, K., (2000), *Social Econom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arini, R., Comola, M., Smith, C., Manchin, R., and Keulenaer, F.,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 Christaller, W., (1966), *Central Places in Southern Germany*, translated by C. W. Baskin, Englewood, NJ: Prentice Hall
- Cutler, D., and Glaeser, E., (1997), “Are Ghettos Good or Bad?,”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3), pp. 827~872
- Fisher, R., and Wassmer, R., (1998), “Economic Influences on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in U.S.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pp. 444~470

- Heikkila, E., (1996), "Are Municipalities Tieboutian Club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6, pp. 203~226
- Losch, A.,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ssey, D., and Denton, N.,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2), pp. 281~315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 416~424

논문투고일 : 2014

논문수정일 : 2014

게제확정일: 2014

송두범 : 영남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재직중이며 관심분야는 커뮤니티개발과 커뮤니티 단위 사회적경제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생협과 커뮤니티(번역서)”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정책만족도 및 수요도 분석 등이 있다([dbsong@cdi.re.kr](mailto:dbsong@cdi.re.kr)).

임준홍 : 임준홍: 계명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재직중이며, 관심분야는 도시재생, 주택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구감소시대의 도시계획(번역서)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jhim@cdi.re.kr](mailto:jhim@cdi.re.kr)).

홍성효 : 미국 Syracuse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집적의 경제, 인구이동, 주택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번역서), 교통경제학(번역서)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Agglomeration and relocation: Manufacturing plant relocation in Korea(Papers in Regional Science), The effects of subsidies for childbearing on migration and fertility: Evidence from Korea(Singapore Economic Review, forthcoming) 등이 있다([shong11@kongju.ac.kr](mailto:shong11@kongju.ac.kr)).

부록

<표 A1> 충남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이동자수에 대한 전출지 분포

전출지	이동		순이동	
	이동자수(명)	비중(%)	이동자수(명)	비중(%)
전국	108,497	100.00	-13,375	100.00
서울특별시	19,680	18.14	-1,806	13.50
부산광역시	2,328	2.15	-581	4.34
대구광역시	2,038	1.88	-561	4.19
인천광역시	6,793	6.26	-1,959	14.65
광주광역시	1,450	1.34	-393	2.94
대전광역시	16,502	15.21	-422	3.16
울산광역시	1,376	1.27	12	-0.09
세종특별자치시	2,915	2.69	710	-5.31
경기도	31,534	29.06	-4,651	34.77
강원도	2,972	2.74	-473	3.54
충청북도	5,844	5.39	-212	1.59
전라북도	5,595	5.16	-336	2.51
전라남도	2,596	2.39	-853	6.38
경상북도	3,118	2.87	-1,346	10.06
경상남도	2,894	2.67	-690	5.16
제주특별자치도	862	0.79	186	-1.39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3

<표 A2> 이주의향 지역별 평균 학력과 소득의 분포

이주의향 여부/지역	학력		소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주의향 없음	8.42	5.19	2.35	1.68
거주 시군 지역 내	12.73	3.25	3.47	1.74
내포신도시 포함 도내 타 시군	13.28	3.20	3.69	1.81
충남 이외 비수도권	14.68	3.02	3.98	1.78
수도권	14.45	2.96	3.42	1.92

주 : 소득은 연간 총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이를 다시 1백만원 미만, 1~2백만원, 2~3백만원, . . . , 7백만원 이상과 같이 8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장 작은 금액을 나타내는 구간을 1로 하고 가장 큰 금액을 나타내는 구간을 8로 정의하였음

자료 : 충남도, 충남사회조사, 2013

<표 A3> 이주의향 여부와 이주지역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 추정 결과

	(1)	(2)	(3)	(4)	(5)	(6)
남성	-0.0373 (-0.44)	-0.0041 (-0.06)	-0.0427 (-0.50)	-0.0976 (-1.21)	-0.0790 (-0.91)	-0.1311 (-1.48)
연령	-0.0807** (-16.37)	-0.0743** (-15.44)	-0.0814** (-16.90)	-0.0566** (-16.15)	-0.0692** (-15.08)	-0.0558** (-16.08)
<b>혼인상태</b>						
미혼	-0.0787 (-0.43)	-0.0567 (-0.31)	-0.0655 (-0.36)	-0.3079 (-1.51)	0.0015 (0.01)	-0.2406 (-1.18)
기혼	0.7426** (6.30)	0.7957** (6.70)	0.7905** (6.38)	0.4464** (3.36)	0.6335** (5.64)	0.3954** (3.12)
이혼	0.6689** (4.71)	0.6011** (4.23)	0.6463** (4.60)	0.3662* (2.50)	0.6030** (4.19)	0.4047** (2.64)
1인/비혈연 가구	0.4161** (3.98)	0.3705** (3.83)	0.4245** (4.17)	0.4003** (4.12)	0.4481** (4.59)	0.4357** (4.47)
<b>거주환경 만족</b>						
의료시설		-0.0150 (-0.70)		0.0016 (0.08)	-0.0045 (-0.20)	0.0061 (0.28)
주거시설		-0.1652** (-7.61)		-0.1853** (-8.76)	-0.1822** (-8.33)	-0.1933** (-8.97)
자연환경		0.0020 (0.09)		-0.0004 (-0.02)	0.0034 (0.16)	0.0008 (0.04)
사회안전		-0.0758** (-4.29)		-0.0807** (-4.83)	-0.0754** (-4.45)	-0.0802** (-4.89)
지역소속감		-0.0942** (-5.17)		-0.0951** (-5.11)	-0.0992** (-5.37)	-0.0982** (-5.25)
삶의 만족			-0.0649** (-4.63)			
<b>계층</b>						
학력				0.1301** (11.27)		0.1143** (7.98)
가구소득						
1백만원 미만					-0.4271** (-4.03)	-0.2128* (-1.91)
1~2백만원					-0.2727* (-2.44)	-0.1900* (-1.66)
3~4백만원					0.2070* (1.87)	0.1323 (1.18)
4~5백만원					0.3828** (2.87)	0.2621* (2.09)
5~6백만원					0.5463** (4.62)	0.3321** (2.59)
6백만원 이상					0.3728* (2.02)	0.1793 (0.86)
Pseudo R <sup>2</sup>	0.1829	0.2034	0.1843	0.2149	0.2089	0.2168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강건한(robust) t-값이며, 오차항은 시군 내에서 상호 연관됨을 가정함.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모든 회귀식에 상수항과 15개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이들의 계수값은 표시되지 않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가구(주)의 수는 12,220임.

## ABSTRACT

# Difference in Migration Intention of Chungnam Citizens across Social Class: Empirical Analyses Based on Chungnam Social Survey

Song, Dooubum·Im, Junhong·Hong, Sung Hyo

Continuation of income polarization and different patterns in migration among classes affect the structure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the structure of stratification changes determines positive externalities from neighbors and the growth of the local society.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using ordered logit models on Chungnam Social Survey show that the average marginal effect of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s on migration decision seems to be the highest as 0.61% with migrations within the city or county where the household in question lives while to be the lowest as 0.18% with those across the border of the city or county but inside Chungnam province. Similar results where social classes are defined by household income instead of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s appear. Such empirical findings that show hierarchical difference in the destinations of migration across classes imply that positive neighborhood effects which are assumed to happen when the local community is composed by various classes could be restricted. In addition, once the high class starts to leave, the self-reinforcing vicious cycle where eventually the low class would remain at the local society could happen at least theoretically. Thus, policy efforts that improve physical amenities in which various classes co-exist, strengthen the tie among people, and thus prevent the local communities from losing vitality are required from local governments.

Key-words: stratification, migration, social integration, ordered logit model